

---

#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박지영\*, 이창식\*\*

##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men Immigrants

Ji Young Park\*, Chang Seek Lee\*\*

**요약** 본 논문은 전국의 여성결혼이민자 592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Baron과 Kenny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는 접근대처를 회피대처보다 많이 사용하며, 이들의 긍정적 복지와 희망수준은 중간을 상회하였으나 부정적 복지는 중간보다 낮았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는 희망과 긍정적 복지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부정적 복지와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회피대처는 희망과 긍정적 복지와의 부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복지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회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주제어:** 스트레스 대처, 접근대처, 회피대처, 희망, 심리적 복지감, 긍정적 복지, 부정적 복지, 여성결혼이민자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stress cop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women immigrants. The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from 592 women immigrants in 10 cities and provinces of Korea. First, it was found that the women immigrants used approach coping more than avoidance coping, and the level of hope and positive wellbeing scored above the middle point. Second, approach cop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ope and positive wellbeing, but avoidance coping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wellbeing.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pproach coping and positive wellbeing was testified. Finally,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pproach coping and negative wellbeing was also testified.

**Key Words :** Stress Coping, Approach Coping, Avoidance Coping, Hope, Psychological Wellbeing, Positive Wellbeing, Negative Wellbeing, Women Immigrant

---

### 1. 서론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고,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면서 문화적응 및 가족관계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 대처(stress coping)란 개인이 자원을 청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수한 외적 및 내적 요구를 다스리기 위해 부단히 변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라고 정의한다[17]. 또한 대처를 해로운 환경조건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실을 견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2-B00333)

\*고구려대학 다문화복지과 조교수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3년 1월 1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3년 1월 25일

디거나 이에 적응하는 것, 긍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는 것, 정서적 평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타인과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17]. 따라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이민국에서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다.

한편 희망은 인간 삶의 본질 그 자체이며,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는 과정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2]. 희망을 측정가능한 척도로 개발한 Snyder[24]에 의하면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찾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그러한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동기화하는 주도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희망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생길 경우 삶에는 난관이 있기 마련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장애로 지각한다는 것이다[25].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은 이민국에서 주요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즉,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행복감 또는 생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의미한다[18][27]. 또한 Ryff와 Keyes[21]는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심리적 복지감은 한국에 이민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 정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전술한 스트레스 대처, 희망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중요한 변인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희망 그리고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아울러 많은 연구에서 희망의 매개 및 조절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스트레스 대처와 희망 간의 관계를 보면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원을 다루는 전략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경로사

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할 경향(주도사고)을 더 많이 보여 주는 것으로[24][26]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가장 힘이 되는 자원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희망이며, 이러한 희망은 처한 상황이나 개인이 소유한 힘, 그리고 나약함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경험을 발생시킨다[15]고 한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와 희망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과정과 결과에도 영향을 주며,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여러 가지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16]. 또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희망은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20].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대처는 심리적 복지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겠다.

그리고 희망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남희[1]의 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현미열 등[10]의 연구, 이희경[6]의 연구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희망이 심리적 복지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끝으로 희망의 다양한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서 희망은 애착과 정신건강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위험집단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희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희망은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3].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 희망과 심리적 복지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희망은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 또는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 대처, 희망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역할은 어떠한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 2. 연구의 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조사대상 지역은 전국 10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이며 조사대상은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171(2010년 현재)개소 중 지역별 2개, 전체 20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무선표집하여 시·도별로 60-65명씩 650명이 선정되었다. 조사방법은 연구원과 조사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방문, 전화, 설문지 발송, 훈련된 학생의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592부가 최종 분석되었다. 또한 설문지는 대상자가 읽기 쉽도록 한국어와 5개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영어, 크메르어)로 번역되었으며, 조사는 201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표 1〉 지역별 조사대상

지역	빈도	%
서울특별시	154	26.0
광주광역시	128	21.6
대전광역시	88	14.9
인천광역시	85	14.4
경기도 일산시	58	9.8
충남 서산시	25	4.2
충남 당진군	54	9.1
합계	592	100.0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3.4세였으며, 20대가 40.4%로 30대, 40대보다 많았으며, 학력은 고졸이 49.1%, 전문대졸이상 26.9% 순이었다. 거주지는 도시가 54.3%로 농촌 45.7%보다 많았으며, 출신국은 베트남 27.8%, 필리핀, 일본, 중국 조선족, 중국 한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연령차는 11-15세가 29.8%, 5-10세가 29.0%, 16세 이상이 24.8%로 나타나 부부간 연령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부모와의 동거 여부는 동거하지 않는다가 66.2%로 높았다. 소득수준은 보통이다가 52.8%, 부족한 편 33.2%로 보통 이하라고 반응한 여성결혼이민자가 85%를 상회하였으며, 한국거주기간은 2-5년이 47.4%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 2.2 조사도구

### 2.2.1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대처 척도는 송금희[5]의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손영미[4]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접근 대처방식과 회피 대처방식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8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 영역별 각 4문항씩 총 32문항 즉, 적극적 문제해결, 사회적 지원추구, 긍정적 비교를 접근 대처방식으로, 외적 감정 발산, 내적 감정 억제, 내적 감정 발산, 거리두기, 체념/철수를 회피 대처방식으로 구성되나 본 연구에서는 접근대처와 회피대처의 하위영역으로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방향의 대처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접근 대처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817, 회피대처 Cronbach's  $\alpha$ =.776로 나타났다.

### 2.2.2 희망

본 연구에서 Snyder 등[23]이 개발한 특성 희망척도(Dispositional Hope Scale: DHS)를 최윤희, 이희경, 이동奎[9]가 한글로 번역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희망척도(K-DHS)를 사용하였다. K-DHS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해 희망을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도사고 4문항, 경로사고 4문항, 허위문항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4점 Likert척도(1=전혀 아니다, 4=분명히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허위문항을 제외하고 주도사고와 경로사고를 포함한 희망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826으로 나타났다.

### 2.2.3 심리적 복지감

심리적 복지감 척도는 Bradburn[14]의 긍정적 복지(positive wellbeing)와 부정적 복지(negative wellbeing) 분류모형을 기초로 황성용[11]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은 과거만족, 미래만족, 현재만족을 측정하는 13개의 긍정적 복지 문항과 소외감, 좌절경험, 사회관계 단절, 역할상실을 측정하는 12개의 부정적 복지 문항 등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복지와 부정적 복지가 높음을 의미하여, 긍정적 복지의 Cronbach's  $\alpha$ =.862, 부정적 복지 Cronbach's  $\alpha$ =.896로 신뢰도가 대체로 높았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PC+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 파악을 위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변인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심리적 복지감과 스트레스 대처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3]의 매개 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증은 Sobel's test를 활용하였다.

## 3. 연구의 결과 및 해석

### 3.1 스트레스 대처, 희망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상관관계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복지감 및 희망의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기 위하여 Pearson 이변량 상관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접근대처와 긍정적 복지( $r=.312, p<.01$ )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접근대처와 부정적 복지( $r=-.175, p<.01$ )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피대처와 긍정적 복지는( $r=-.209, p<.01$ ) 부적 상관관계, 회피대처와 부정적 복지( $r=.371, p<.01$ )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접근대처와 희망( $r=.427, p<.01$ )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회피대처와 희망( $r=.057, p>.05$ )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희망과 긍정적 복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r=.539, p<.01$ )를 나타냈고, 희망과 부정적 복지는 부적 상관관계( $r=-.374, p<.01$ )를 나타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스트레스에 대하여 접근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긍정적 복지가 높고 부정적 복지는 낮으나 회피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긍정적 복지는 낮고 부정적 복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근대처를 많이 사용할수록 희망이 높았으며, 희망이 높을수록 긍정적 복지는 높고 부정적 복지는 낮았다.

한편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접근대처는 2.4068점으로 회피대처 2.1417점보다 높았다. 그리고 희망은 3.3684점으로 중간을 상회하였으며, 긍정적 복지는 중간(3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부정적 복지는 중간보다 낮았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는 접근대처를 회피대처보다 많이 사용하며, 부정적 복지보다는 긍정적 복지가 높고, 희망수준은 중간을 상회하였다.

### 3.2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 3.2.1 스트레스 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먼저 스트레스 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3]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접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접근대처가 종속변인인 희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 $\beta=.427, p<.0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접근대처가 종속변인인 긍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12, p<.001$ ).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접근대처( $\beta=.101, p<.001$ )와 희망( $\beta=.496, p<.001$ )이 긍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접근대처의  $\beta$ 값이 2단계에서 .312이었던 것이 .101로 감소

<표 2> 변인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스트레스 대처		심리적 복지감		희망	평균	표준편차
	접근대처	회피대처	긍정적복지	부정적복지			
접근대처	1					2.4068	.45850
회피대처	.501**	1				2.1417	.36522
긍정적 복지	.312**	-.209**	1			3.3068	.60196
부정적 복지	-.175**	.371**	-.656**	1		2.3727	.71776
희망	.427**	.057	.539**	-.374**	1	3.3648	.59285

\*\*p<.01

하였으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Z=8.681, p<.001$ ).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 복지의 증진은 스트레스의 접근대처의 사용뿐만 아니라 희망의 증진을 통하여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둘째, 회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처가 종속변인인 희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 $\beta=.057, p<.0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처가 종속변인인 긍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09, p<.001$ ).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처( $\beta=-.239, p<.001$ )와 희망( $\beta=.552, p<.001$ )이 긍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회피대처의  $\beta$ 값이 2단계에서  $-.209$ 이었던 것이  $-.239$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회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없었다( $Z=1.404, p>.05$ ). 따라서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회피대처를 사용할 경우 희망의 증진을 통한 긍정적 복지의 증진은 불가함을 의미한다.

### 3.2.2 스트레스 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스트레스 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3]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접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접근대처가 종속변인인 희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 $\beta=.427, p<.0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접근대처가 종속변인인 부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175, p<.001$ ).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접근대처( $\beta=-.018, p<.001$ )와 희망( $\beta=-.368, p<.001$ )이 부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접근대처의  $\beta$ 값이 2단계에서  $-.175$ 였던 것이  $-.368$ 로 감소하여 접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Z=-6.951, p<.001$ ).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복지감 증진을 위해서는

〈표 3〉 긍정적 복지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와 희망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eta$	t	R <sup>2</sup>	$\Delta R^2$	F	Sobel's test
접근대처	희망	.552	.427	11.611***	.182		134.805**	
접근대처	긍정적 복지	.411	.312	8.070***	.098	-.84	65.126***	8.681***
접근대처	긍정적 복지	.133	.101	2.678***	.299	.201	128.118***	
회피대처	희망	.093	.057	1.409***	.003		1.986***	
회피대처	긍정적 복지	-.344	-.209	-5.235***	.044	.41	27.410***	1.404
회피대처	긍정적 복지	-.394	-.239	-7.254***	.348	.304	160.150***	

\*\*\*p<.001

〈표 4〉 부정적 복지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와 희망의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B	$\beta$	t	R <sup>2</sup>	$\Delta R^2$	F	Sobel's test
접근대처	희망	.552	.427	11.611***	.182		134.805***	
접근대처	부정적 복지	-.274	-.175	-4.361***	.031	-.151	19.022***	-6.951***
접근대처	부정적 복지	-.029	-.018	-.437***	.141	.110	49.496***	
회피대처	희망	.093	.057	1.409***	.003		1.986***	
회피대처	부정적 복지	.728	.371	9.798***	.138	.135	96.000***	-1.399
회피대처	부정적 복지	.722	.393	11.456***	.295	.157	125.786***	

\*\*\*p<.001

스트레스의 접근대처뿐만 아니라 희망의 증진을 통하여 가능함을 검증하였다.

둘째, 회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처가 종속변인인 희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고( $\beta=.057, p<.0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처가 종속변인인 부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71, p<.001$ ). 그리고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회피대처( $\beta=.393, p<.001$ )와 희망( $\beta=-.398, p<.001$ )이 부정적 복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나 회피대처의  $\beta$ 값이 2단계에서 .371이었던 것이 .393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회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1.399, p>.05$ ).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회피대처를 사용할 경우 희망을 통한 심리적 복지감의 증진은 불가함을 나타낸다.

#### 4. 논의 및 결론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는 접근대처를 회피대처보다 많이 사용하며, 이들의 긍정적 복지와 희망수준은 중간을 상회하였으나 부정적 복지는 중간보다 낮았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접근대처를 사용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 문제해결, 사회적 지원추구, 긍정적 비교를 통하여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능동적인 대처를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12]와 의미가 상통하는 것이며, 한국인 중년 여성들이 남성과 비교하여 회피와 같은 정서 중심적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들[7-8]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이유는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인 여성들보다 남녀 평등주의적 사고가 높은 점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른 집단보다 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병행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긍정적 복지와 희망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는 희망과 긍정적 복지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부정적 복지와의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회피대처는 희망과 긍정적 복지와의 부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복지와의 정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스트레스에 대해 접근대처를 많이 할수록 희망수준과 긍정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회피대처를 많이 할수록 부정적 복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Snyder[24][26]의 연구결과들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인데, 그 이유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원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원을 다루는 전략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경로사고),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는 경향(주도사고)도 높다는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는 부정적인 사건이나 현실을 견디거나 이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능력은 심리적 복지감의 증진을 가져오기 때문에 접근대처를 사용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긍정적 복지감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회피대처는 희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대처는 내적 감정 억제, 내적 감정 발산, 거리두기, 체념/철수 등과 같이 소극적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경향인데 반해 희망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관여하는 경로사고와 주도사고의 동기화된 상태를 의미하여 두 변인간 관련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회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접근대처가 심리적 복지감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희망이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희망은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서 생활을 참을 수 있고 의미있게 하는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의 한 요소로서 신체적, 정신적인 방어를 강화하는 기능[19]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회피대처와 긍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은 상관분석에서 보았듯이 회피대처와 희망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접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나 회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도 셋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희망의 역할이 긍정적 복지의 증진만이 아니라 부정적 복지의 감소에도 기여했기 때문이다. 반면 회피대처와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이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이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있는 주요 변인들 중 스트레스 대처,

희망, 심리적 복지감을 다루었는데 차후 연구에서는 이들 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의 완전한 정착 뿐 아니라 이민 당시의 그들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고, 또한 심리적 복지감이 계속해서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1] 김남희 (2006). 희망과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김달숙 (1992). 희망의 간호학적 이론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3] 나혜진 (2009). 고위험 집단 청소년에서 희망과 스트레스 대처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손영미 (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 및 대처유형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인천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송금희 (1998). 중학교 학생이 겪는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이희경 (2007).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51-766.

[7] 전경구 · 김교현 (1993). 주부생활 스트레스와 대처척도의 개발연구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 97-217.

[8] 전영자 · 김세진 (199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 최윤희 · 이희경 · 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2), 1-16.

[10] 현미열 · 이종은 · 박선남 (2003). 청소년의 희망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 116-123.

[11] 황성용 (2009).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여가활동 서비스가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2] 황인춘 (2006).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여성의 성격유형별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 분석. 선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3.

[14] Bradburn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 Aldine.

[15] Breznitz, S. (1986). The effects of hope on coping with stress in dynamic of stress: Phys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Ed. M. H. Appley and R. Trumbull, New York Plenum, 1986, 295-306.

[16] Kessler, R. C. & McCrae, J. A. (1981). Trend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and psychological distress: 1957-1976. *American Sociological Journal Review*, 46, 443-452.

[17]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18] McDowell, L., & Newll, C. (1990). *Measuring health :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19] McGee, R. F. (1984). Hope: a factor influencing crisis resolution. *Advances in Nursing Sciences*, 6(4), 34-44.

[20] Ong, A. D., Edwards, L. M., & Bermeman, c. S. (2006). Hope as a source of resilience in later adulthoo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263-1273.

[21] Ryff, C. D. & Keys, C. L.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22] Shorey, H. S., Snyder, C. R., Yang, X, Lewin, M. R. (2003). The role of hope as a mediator in recollected parenting, adult attach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2(6), 685-715.

[23] Snyder, C. R., Holleran, S. A., & Irving, L. M., et al. (1991). The will and the way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s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24]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New York: Free press.

[25] Snyder, C. R., Lapointe, a. B., Crowson, J. J., &

Early, S. (1998). Preferences of high-hope and low-hope people for self-referential input. *Cognition and Emotion*, 12, 807-823.

[26] Snyder, C. R. (2000). The past possible future of hop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06-208.

[27]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1-34.

### 박 지 영



- 2010년 3월 ~ 현재 : 고구려대학교  
다문화복지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복지, 노인복지,  
평생교육, 기부
- E-mail : teawel@kgrc.ac.kr

### 이 창 식



- 1993년 2월 ~ 현재 : 한서대학교 아  
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나눔교육
- E-mail : lee1246@hanmail.net